

#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3  
vol. 260



# RALPH LAUREN

INTRODUCING THE RL 888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

CHANEL





#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Yellow gold, pink gold, diamonds, mother-of-pearl and onyx.



# RE/ICONS

Where our heritage meets our future. When our past embraces our present.  
And when timeless products become a sign of the times.

KARAKORUM JACKET FW23  
DISCOVER MORE ON [MONCLER.COM](https://www.moncler.com)



16



18



조선훈보  
Style  
OCTOBER 2023  
RALPH LAUREN  
INSPIRING THE CITY



28



12

- 13 **ANOTHER TIME** 액세서리로만 취급받던 여성 위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매력.
- 15 **SHINING CHARISMA** 더 이상 다이아몬드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별함을 원하는 남성에게도 우아한 선물이 될 다이아몬드 워치.
- 16 **패향에서 살아남는 예술** "커피의 작업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요?" 7년 전쯤, 안젤름 커피의 전사를 보고 난 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는 필자의 말에 이유환은 이처럼 존칭살인의 질문을 했다. 수감할 만한 반응이다. 마치 그리스 비극을 상징하는 3대 작가의 연극을 감상하고 나서 그저 "아름다웠다"고 평한 것과 비슷한 결이 아닐까.
- 18 **FALLING FOR ART** 만약 옮기를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을 계획이 있다면, 혹은 가까운 도시를 방문할 예정인 미술 애호가라면 영두에 들 만한 행사가 있다. 오는 10월 말 프리부르로 시작해 11월 초까지 열리는 가을 미술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 19 **THE DAZZLER** 브레이슬릿의 화려하고 우아한 감성에 워치의 기능을 더해 멀티플레이어적 면모를 드러내는 브레이슬릿 워치.
- 20 **BOLD ROUND** 대담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링은 그 자체로 훌륭한 포인트가 된다.
- 21 **ON THE WRIST**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심플하고 도회적인 무드를 전하는 맨즈 브레이슬릿 컬렉션.
- 22 **GREAT WORLD OF DIVE WATCHES** 피프티 패덤즈가 탄생한 프랑스 남부 칸에서 화려하게 베일을 벗은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
- 24 **MODERN ELEGANCE**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올드머니 룩을 위한 제안, 포멜라토의 이코니카 컬렉션.
- 26 **작은 다이얼에 담긴 큰 의미** 론진의 대표 여성 컬렉션 돌체비타의 신제품 론칭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다.
- 28 **THE OTHER GIRL** 빛나는 가을 하늘 그리고 클래식한 뉴욕. 그녀의 눈부신 가을날의 초상.
- 36 **BON VOYAGE** 튼튼한 내구성과 스타일까지 겸비했다. 스마트 여행자를 위한 라지 컬렉션.
- 37 **NOW AND NOWHERE** 상상 속 그곳, 노웨어(nowhere)를 모티브로 에트루만만의 기발한 재스처를 담은 2024 S/S 컬렉션을 공개한다.
- 38 **FEEL AUTUMN** 가을 햇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메이크업.
- 39 **TIMELESS LUXURY OBJECT** 사넬 하우스의 헤리티지 그 자체를 담은 프리미엄 럭셔리 립스틱, 31 LE ROUGE의 탄생.
- 40 **DREAM BATH** 광범한 욕실에 감성을 한 스푼 더할 욕실용품 컬렉션.
- 41 **LEGEND OF BEAUTY** 첨단 테크놀로지로 탄생한 독보적 피부 과학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차원이 다른 피부를 완성하는 스킨케어,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과 함께한 결정의 시간.
- 42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훈보)가 엄선한 이들의 뷰티템.

POMELLATO.COM 02 3143 9486



THE POMELLATO TOGETHER AND ICONICA COLLECTIONS  
INSPIRED BY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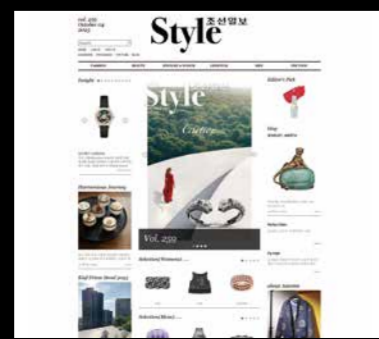
# Style 조선훈보

Issue.260 October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명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쇄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훈보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훈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훈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언젠가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훈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훈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Pomellato

MILANO 1967



# NEO CLASSIC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번지에 위치한 할프 로렌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영감을 얻은 뉴 백, RL 888을 소개한다. 뚜렷한 각도, 드라마틱한 곡선 등 뉴욕의 대표 건축양식을 그대로 담은 RL 888은 크로스 보디, 톱 핸들, 미니 크로스 보디 체인으로 구성했으며, 각각의 피스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숙련된 장인들이 제작했다. 고급스러운 카프 레드 혹은 실크 사틴으로 완성한 RL 888은 깨끗한 부분만 정교하게 골라내 수작업을 통해 36개의 조각으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세심한 공정으로 RL 888의 매끄러운 광택, 부드러운 질감이 탄생했다. 앞면의 시그니처 RL 모노그램은 푸시록 잠금쇠를 장식해 기능성과 고급스러운 형태미가 어우러진다. 4백만원대, 문의 02-3467-6560

## BEAUTIFUL CONTRADICTIONS?

현대인의 일상에서 유연함을 지닌 모듈 시스템 가구의 매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용미와 견고함을 갖춘 선반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역의 강자인 스웨덴 브랜드 스트링 페너체가 아심 차게 선보인 피라 G2(Pira G2)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다. 스웨덴 장인 올레 피라(Ole Pira)의 1950년대 클래식 디자인을 건축가 안나 폰 슈벤(Anna von Schwen)과 산업 디자이너 비요른 달스트롬(Björn Dahlström)이 현대적으로 풀어낸 모듈형 선반 시스템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품은 디자인의 정수는 살리면서 오늘날의 발달된 기술과 재료를 반영했다. 빈티지 감성과 모던함을 동시에 품고, 심세하면서도 견고하며, 금속과 목재의 대조를 갖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수사가 붙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거대한 양면이 탈도록 세우는 '독립형'으로도, 벽에 고정하는 '벽걸이형'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조립하면 미치 앞의 해의 가구였던 것처럼 완성도 높은 디자인적 오리를 지어낸다. 일체형 강판 구조로 이루어진 선반이 최대 50kg의 무게를 지탱하며, 확장도 가능하다. 기둥은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 색상으로 나와 있고, 월넛과 화이트 오크 소재의 복엔드와 캐비닛을 추가할 수 있다. 문의 에잇컬러스(8colors.co.kr)

## ECSTATIC NIGHT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인 밤에는 더 스페셜한 스킨케어를 원하게 된다. 밤에 사용하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트 케어 제품이 필요한 때, 사벨 수블라지 리엑스트레드 뉴를 추천한다. 세럼 형태의 프리미엄 고농축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로 바닐라 플라-폴리아와 스웨티아 추출물, 그리고 크로노펩타이드를 함유한 혁신적인 고농축 포뮬라가 밤에 피부 활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한다. 사용 후 다음 날 아침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환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것. 30ml 83만원, 문의 080-805-9638

### 아름다운 헌사

만년필의 명가로 유명한 몽블랑에서 20세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오페라 가수 미리아 칼라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유일무이한 만년필, 뮤즈 미리아 칼라스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 미리아 칼라스의 우아한 자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그녀가 가장 아끼던 칼라인 블루와 타워아이스로 장식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고향인 푸른 에게해를 상징하는 클림의 페탈 컷 합성 보석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로돌 코팅된 AU585 14K 솔리드 골드 나가는 그녀의 눈매를 담은 고양이 눈과 그녀의 애칭 라 디비나(LA DIVINA)가 인그레프된 채 들어 있다. 제품은 만년필뿐 아니라 수성 펜과 볼펜으로도 출시된다. 1백60만원, 문의 1877-5408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빛나는 시간

오데마 피가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를 재탄생한다. 지름 37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3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장식의 베젤이 화려하고도 우아한 맛을 전한다. 이와 동시에 라이트 블루 칼라인 레이디 태피스트리(Lady Tapisserie) 패턴 장식 다이얼과 조화를 이뤄 유니크함을 선사한다. 또 아워 마커와 핸드는 아광과 핑크 골드 아플레케 장식으로 제작해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자동식 칼리버 2385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5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8천2백만원대, 문의 02-533-1351



## BLOOMING DAYS

영원히 아름다지 않는 꽃을 품은 베젤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부채날리 블러섬 컬러 아이걸링 섀도우 오페라 에디션 총 0.67캐럿의 38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2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반클리프 아펠 피라블 네그리스 97캐럿의 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제작해 우아함을 배가했다. 2천만원대, 문의 1668-1906 디올 파르푸머리 로즈 디올 파르푸머리 링 장미 모티브의 핑크 퀴츠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총 0.2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피아제 피아제 로즈 아펠링 약 1.28캐럿의 1백4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1668-1874 포토그래프 화판 에디션 윤자영 아시안트트 신장림



# TOD'S

TODS.COM



트렌디한 체크 패턴이 매력적인 블루 체크인 다음 테리-컬 모헤어 일파카니트 3백10만원 다음.

보리음 울리 7호(이 모헤인 코니카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가을에 어울리는 딥 버건디 컬러의 울 트윈드 햇 가격 미정 샤넬.

실크 트윈 소재 부클리의 모던 플러티 스카프, 70cm, 56만원 에르메스.

# for her Selection

패셔너블하게 가을 여행을 즐기는 그녀만의 에티튜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un sang



딥 그린 컬러 미니 사이즈가 보편적인 컬러지. 12x2.5x14.5cm, 97만원 50나.



따뜻한 감성을 더해줄 와이드 웨일 코듀로이 와이드 레그 팬츠 43만9천원 홀로 발트 로렌.

세련되고 우아한 에티튜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핑크 다이얼로 포인트를 다한 내티미터 32.9만9천원 에르메스 브라이틀링.



로즈 골드 소재의 18캐럿 다이아몬드와 핑크 톱카이트 스톤으로 컬러 포인트를 더한 다채로운 브라이틀링 로렌.



대형한 체인 모티브로 완성한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화이트 다이아몬드 1.63캐럿과 18K 로즈 골드로 완성한 플러티 모티브의 프레스코 레이스 미니-프루프루 이어링 2천9백7천원 소피.

체크 패턴이 매력 포인트를 더해줄 캐시미어 100% 드레키 스카프 5만9천원 로로리아나.

체크 패턴이 매력 포인트를 더해줄 캐시미어 100% 드레키 스카프 5만9천원 로로리아나.



체크 패턴이 매력 포인트를 더해줄 캐시미어 100% 드레키 스카프 5만9천원 로로리아나.



모던한 디자인과 딥 그린의 컬러감으로 울드 미니 룩을 완성할 스몰 이동형 미니 사이즈 20x23.5cm, 21만4천원 에르메스 로저 비비에.



패셔너블 체크 패턴 소재에 크리스탈 포인트를 더한 트레 비비에 스트라스 미니 베이비 발라리나 플랫 1만9천6천원 로저 비비에.

다음 02-3280-0104 전담문서 070-4128-2122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프러더 02-3442-1830 모이나 02-2254-4150  
로로리아나 02-6200-7799 홀로 발트 로렌 02-6004-0220 브라이틀링 02-792-4371 불가리 02-6105-2120 소피드 02-6905-3390 티파니 02-6250-8620  
에트르 02-3446-1969 알파리 02-2018-1439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Another Time

액세서리로만 취급받아온 여성 위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샤넬 워치 마드모아젤 J12 라 피우자 견 고한 화이트 세라믹 및 스틸로 완성한 지름 38mm 케이스에 스틸과 화이트 버키시 세라믹 크리스탈 소재의 단방향 회전 배럴이 특징인 워치로 다이얼 중앙에 있는 마드모아젤 사넬 조지아(이)코브린 감성을 부여한다. 스위스 캐시미어 매뉴팩처가 제작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2.1로 구동한다. 1천9백90만원. 문의 080-805-9628

가르다에 발롱 블루드 가르다에 지름 33mm 스틸 케이스에 카본송 킷 합성 스파셜 17개를 세팅한 플루이드 스틸 크라운이 아이코닉한 감성을 더한다.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했으며, 매트 실버 마감의 타일 광선 모티브 다이얼과 검 도양의 블루 스틸 핸즈로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 오토매틱 와인딩 매개-컬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9백90만원. 문의 1877-4326

반젤리프 아메리칸 아메리칸 폰 데 지모르 주 라운드 다이아몬드 장식한 지름 38mm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가 돋보인다. 특징 개찰한 몬드렌드 에디션 레트로그래프 모음 장치를 장식한 그라피티 아메리칸 폰 데 지모르 시계는 사아니나 디 페를 알파리터 스트랩을 조화롭게 매치해 통일감을 부여했다. 2천9천. 문의 1877-4128

브레게 트루-선 덤 7038 무브먼트를 감성할 수 있는 오픈워크 다이얼로 여성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정성을 보여준다. 약 0.885캐럿, 6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7mm 18K 골드 케이스에 수공 기교세 마간의 마드모아젤 센터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레트로그래프 시계존을 장식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5천9백37만원. 문의 02-3479-1008

피아제 알티미라 문레이즈 지름 36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 총 0.94캐럿의 7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문레이즈로 8각형과 여성스러운 감성을 부여한다. 약 3.23캐럿 마드모아젤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중앙 하단의 문레이즈 인디케이터가 여성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로서의 위상을 드러낸다. 피아제 자체 제작 580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5천9백50만원. 문의 1668-1874

에거 롤드트르 랑데부 나잇 & 데이 미디엄 여성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표하는 워치에게 우아한 디자인으로 차별되는 시계. 지름 34mm의 은은한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 60개의 눈부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더하고 다이얼 중앙에 낮, 밤 인디케이터를 매치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면모를 드러낸다. 에거 롤드트르 칼리버 698A/1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3천9백90만원. 문의 1877-4201 에티튜드 상영진



외드한 프레임으로  
따뜻한 가을 태양을  
맛스럽게 거울  
선글라스 67만원 프라다  
by 에실로룩스타카

캠버스 원소 가죽으로 완성한 수공도  
캐주얼 미니 크기의  
높은 의가드 홀더, 10X0.5X7cm,  
46만원 원하나.

신디카V 라인에 에 포인트를 대패를 추가하여 소매 리본을 벨트 장인의 발판은 가려버려.

송이 자켓으로 완성한 백팩으로 무심한 듯 스타일미치한  
연출을 도와줄 맥스노에슬링 백, 34X48X18cm,  
5만9천원 루이비통.

스웨이드 맨스 슈어와 가죽 신지  
합으로 가을의 온기를 연출하는 도우  
재킷 7만 원 원하나.

최고의 품질에 블랙  
PVD로 마감된 포인트를 다한 리프트로  
블랙 스타일링 아이템이다 무비엔.

캠버스 원소 가죽으로 완성한 수공도  
캐주얼 미니 크기의  
높은 의가드 홀더, 10X0.5X7cm,  
46만원 원하나.

# for him Selection

가을에 어울리는 소재와 컬러에 여행의 편안함을 갖춘, 스타일리시한  
남성을 위한 여행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un sang



양쪽 주머니 완성한 오버사이즈  
패션 룩이다 백팩이나 가방  
선생이 어울린다.

루이비통 02-3432-1854  
에실로룩스타카 02-501-4436  
빌렌타노 가문바니 02-2015-4655  
벨루티 02-547-1895 모이나 02-  
2254-4150 프레드 02-514-3721  
발리 02-3467-8935 부세론 02-  
3467-8334 페리카도 02-3430-  
7854 캔디 02-544-1925 로야베 02-  
3479-1785 카르타에 1877-4326  
에르메스 02-542-6622 생 로랑 by  
인토나 바카텔로 02-6105-2228 힐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테크니컬 메쉬 소재의 코트 스킨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니커즈  
1백48만원 에르메스.



무릎의 로고나 포인팅  
외드한 프레임에  
가늘고 긴 라인  
배기 장미 1백48만원 원하나.

블랙 카프 스킨에  
귀여운 사이즈로  
룩에 포인트를 다할  
솔페리노(SOLFERINO)  
미니 백, 18X11X5cm,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인토나 바카텔로.



스틸 케이스에 그린 컬러  
옐로게이머 라더 소재의  
브라운 슬릿과 다이얼을 매치해  
인피닛을 선사하는 스틸 스트  
가드피에 워치 1천1백만원  
카르티에.



송이 자켓으로 완성했으며, 어디에 매치하든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 스니커즈  
이질레 1백48만원 원하나.

미성년  
시절부터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피드 마스터 1이름 지름 38mm의  
컴팩트한 워치 블루 다이얼이 인상적이며 깔끔하고 세련된 티  
자인으로 스포츠 워치의 정석을 보여준다. 백함에 총 0.4캐럿의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했다. 스피드 마스터 01.01-C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9백6만원.  
문의 02-6906-3390

로저트워치 엑스칼리버 42 핑크 골드 케이스 베젤에 총 0.9캐럿의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무드를 선사했다. 심해 사린 선  
바스트 다이얼과 황금의 로만 인디케이터로 감성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마  
이티로 로터와 스물 시간대를 적용한 오토매틱 RD620 칼리버로  
구동하며, 5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7천3백50만원.  
문의 02-3479-1403

에르메스 워치 아쉴로 망보아주 제롬 콜라르(Jérôme Collard)  
가 디자인한 '콜라르' 스페셜 워치 에르메스(Paris)ère D'un  
Monde Equestre' 모티브의 38mm 분홍 도금 플라시 다이얼에  
화이트 찬란 자개 카운터를 매치했다. 에르메스 매뉴팩처 H1837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시, 분, 도시 인디케이터가 포함된 듀얼 타임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3천9백95만원. 문의 02-542-3622

샤넬 워치 J12 블랙 세라믹과 스틸 케이스. 단방향 스텝 회전 베젤  
을 갖춘 이이 크라운 디자인에 약 0.03캐럿, 12개 다이아몬드를 인  
디케이터에 세팅한 지름 38mm의 플래티넘 레커 다이얼을 장식했다.  
브라운 슬릿 역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해 맛스러운 통일감을 자랑  
한다.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J12.1로 구동한다. 1천3백70만원  
대. 문의 080-806-9628

\*리치드 밀 RM037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를 대하고 베젤과 다이  
얼 일부분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극한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부  
여한다. 3.2캐럿 배스톤 플라시와 브리지는 5등급 티타늄 소재  
로 이뤄져 있으며,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강도 경종 테스트  
를 거쳤다. 인하우스 칼리버 CRMA1로 구동한다. 5955만원 원하나.  
문의 02-512-1311

브레게 클라시 9068 직경 33.5mm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  
스에 약 0.606캐럿의 88개 브레게 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  
아한 감성을 더한다. 찬란 화이트 마다모브릴 다이얼에 개별 번호  
와 시침, 아부치아수치 인덱스의 시간 윈도우 링 등으로 다채롭고  
생생하게 마무리했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81A로 구동한다.  
3천9백6만원. 문의 02-3479-1008 에디터 상정민

# Shining Charisma

특별함을 원하는 남성에게도  
우아한 선물이 될 다이아몬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안젤름 키퍼: 가을 Herbst〉展\_대전 헤레디움(HEREDIUM) 폐허에서 살아남는 예술

“키퍼의 작업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요?” 7년 전쯤,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에서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의 <책의 연금술(L'alchimie du livre)> 전시(2015. 10. 20~2016. 2. 7)를 보고 난 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는 필자의 말에 이우환은 이처럼 ‘촌철살인’의 질문을 했다. 수궁할 만한 반응이다. 마치 그리스 비극을 상징하는 3대 작가의 연극을 감상하고 나서 그저 “아름다웠다”고 평한 것과 비슷한 결이 아닐까. 미술가보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이우환은 누구보다 키퍼를 잘 이해하는 작가일 수도 있다. 그의 작품에는 아름다움을 넘어선 숭고함과 처절함, 물질과 정신, 장엄함과 폐허 등의 양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아만적”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며, 시를 포함한 ‘아름다운 가상’ 그 자체와의 타협을 완곡하게 거절했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1903~1969)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평범한 인간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기에, 키퍼의 작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파울 쉘란,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들의 시(詩)뿐이라.

## ‘예술은 폐허에서도 살아남으리라’

파리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가르침을 건네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라는 지성의 전당이 있다. 이곳에서 미술가 최초로 예술 창작 석좌 교수로 임명된 이가 바로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다. 그리고 당시 그의 유명한 취임 강연(2010년 12월 2일) 제목이 ‘예술은 폐허에서도 살아남으리라(L'art survivra à ses ruines)’라는 문장이었다. 독일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프랑스로 이주한 키퍼의 예술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시작됐다. 이 강연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전 〈안젤름 키퍼: 가을 Herbst〉(2023. 9. 8~2024. 1. 31)가 대전 동구에 자리한 헤레디움(HEREDIUM)에서 열리고 있어서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만주와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설립된 수탈 기관인 (주)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전 지점 건물을 복원해 운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헤레디움은 라틴어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을 지녔다.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된 이 건물은 애환 서린 근대건축 유산을 파괴하기보다 역사성과 공간의 특수성을 잊지 않게 남겨둔 덕에, 쓰러진 폐허 위에 예술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장소성 자체가 키퍼의 작업 철학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안젤름 키퍼: 가을 Herbst〉전은 헤레디움의 공식 개관전으로 지난해 가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갤러리인 타테우스로

팍 서울에서 열린 안젤름 키퍼의 전시 <지금 집이 없는 사람>과 연속선상에 있다(울거울 전시도 로파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두 전시에서 키퍼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가장 중요한 ‘연금술’ 재료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Herbsttag, 1902)’, ‘가을(Herbst, 1906)’,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Ende des Herbstes, 1920)’이기 때문이다. 이 세 편을 포함할 수 많은 시가 그의 영혼 속에 평생 기거해왔으며, 그 가운데 수면 위로 올라온 시들은 이처럼 작품으로 시각화된다. 그래서 키퍼의 연작 ‘지금 집이 없는 사람(Wer jetzt kein Haus hat... , 2016~2022, 이하 ‘집 없는’ 연작)’에는 제목과 동일한 다음 시구가 특유의 글씨체로 적혀 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는다.’

위와 유명한 이 시를 이전에 흥얼흥얼 읊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다시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MZ 세대가 떠오른다. 그다음 이어지는 시구는 더욱 아찔하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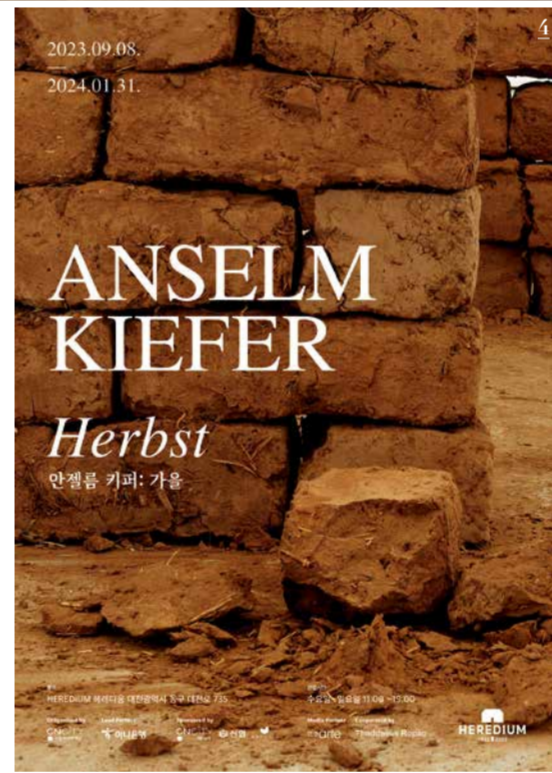
‘집 없는’ 연작은 독일, 프랑스, 한국도 아닌 영국에서 시작됐다. 키퍼는 ‘하이드 파크에 앉아 있었는데, 무언가 ‘뿡’ 터지는 섬광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낙엽을 비추는 빛과 그 빛이 만들어내는 색깔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동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놓았고, 후일 작업에



이 들어가기 위해 작품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면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듯 청각화된다.

## 남: 연금술과 카발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회화를 비롯해 안젤름 키퍼는 오랫동안 납, 금박, 지푸라기 등의 재료를 사용해 작업해왔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 세 가지 마티에르가 키퍼의 손에 들어가면 마치 원래는 하나의 본질이었던 듯 고귀하고 비물질적이며, 숭고하게 변모한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 그는 은밀한 비법과 주문으로 연금술에 성공했다. 녹인 납을 물감과 섞어서 사용하거나 물감 위에 액체화된 납을 덧바르기도 하고, 일반적인 납 판을 부식시키거나 다른 금속과 섞어서 혹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은백색의 납은 백색이 잘되고, 융해점이 낮고 유연하기에 키퍼의 작업에 적절한 마티에르다. 아니, 어쩌면 납의 성격 때문에 그의 작업이 그렇게 방향 지워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납을 보면, 왜 그렇게 오랜 세기에 걸쳐 연금술사들이 납에서 신비하고 가치 있는 다른 금속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겼는지 이해된다. 그만큼 납은 형용하기 어려운 신비, 혼돈, 불안 등 다양한 매력을 지어낸다. 독성이 있고 무거운 납이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물질로 변모하는 걸 보면, 분석심리학 창시자로 통하는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다음과 같은 해석이 연상된다. ‘연금술이란 오염된 물질을 분해와 융해를 통해 그 안의 순수한 실체를 추출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기원이자 ‘목적과 상통하는 대목이 아닐까? 키퍼에게 납은 연금술과 카발라(Kabbalah)를 매개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중세까지 납은 황과 함께 금을 만들기 위한 원소로 연금술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인 카발라에서도 중요한 물질이다. 이는 그의 미술적 계보와도 연관된다.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가 바로 그의 선생이었다. 보이스의 영향으로 그는 1970년대 뒤셀도르프 예술원에서 공부할 당시 유대교 신비 철학과 북유럽



착수했다고 한다. 헤레디움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신작을 포함해 대형 작업 16점을 프랑스에서 직접 수송해 왔는데, 일부 캔버스 뒷면에는 그 당시 찍은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다(전체 전시 작품 수는 17점이다). 2층 전시 공간의 중앙에는 1백18개의 옹토 벽돌로 만든 ‘집(설치 작품)’이 있다. 4면 벽의 일부만 남아 있는 이 집은 짓다가 멈춘 것인지, 아니면 세월에 의해 허물어진 폐허인지 알 수 없다. 허물어진 만큼 그 흔적은 더욱 아련하다. 이 설치물은 대형 회화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다. 오롯이 집중해보자. 릴케의 시와 그 운율이 그대로 그림으로 시각화되면서 어느새 관람객은 깊어가는 가을 한가운데 놓인다. 비 온 뒤 숲속의 낙엽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며 후각화된다. 캔버스 위 입체적인 낙엽은 금방이라도 가을바람에 휘날려 날아갈 듯하고, 나뭇가지에 붙어 있던 잎들은 떨어져 관람객의 발 앞으로 굴러올 듯하다. 숲속으로 좀 더 깊

의 신화적 요소를 끄집어내 이를 2차 세계대전에 접목했다. 당시 독일 미술가들은 나치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양식과 주제를 찾으려 했으나, 키퍼는 나치즘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다시 역사의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도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여러 낯선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그는 ‘문학, 천체물리학, 카발라, 진화론, 연금술, 생물학 등 모든 분야에 똑같이 친숙하다며, “어떤 것도 예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예술의 정의는 부재하다. 그 방식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연금술사 키퍼의 주장이다(클레주드 프랑스 교수 취임 강연 내용).

## 시의 변곡점에서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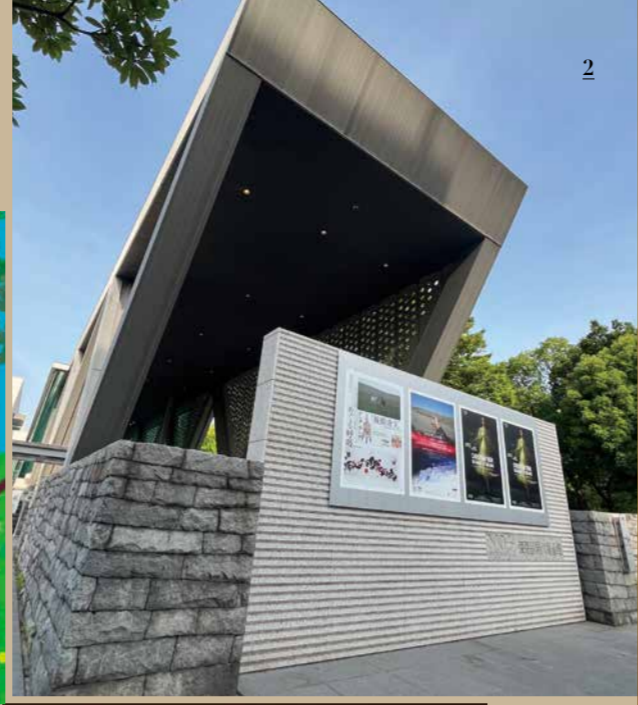
오늘날 인공지능(AI)의 역량은 공포스러운 정도로 커지고 있다. ‘시를 읽고 생성하며 ‘철학’ 논문(빅데이터의 일부)을 읽고 사유하는 AI를 옆에 두고, 인간은 스크린만 쳐다보는 아이러니한 또 다른 폐허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인고의 사유 과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2014년 2월 발발한 이라크 참전 참모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 무엇보다 시급한 기후변화 같은 재앙에도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인류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파리시영에 있는 감동을 준 안젤름 키퍼의 개인전은 하늘이 보이는 유리 지붕의 파리 그랑 팔레에서 개최됐는데, 제목이 ‘떨어지는 별(Chute d'étoiles)’이었다. 별이 떨어진다는 건, 아도르노가 주장했던 ‘예술 불가능성’의 시대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폐허에서 예술이 살아남는 모습을 이변 〈안젤름 키퍼: 가을 Herbst〉전을 통해 체험하며 희망을 얻는다. 죄르지 루카치(György Lukács, 헝가리 철학자이자 문예 이론가)의 저서 <소설의 이론(The Theory of the Novel)> 속 문장을 빌리자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지도가 되어주었던 시대를 상기시키며, 떨어진 별을 주위 울리기 위해 예술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글 심은복(미술 비평가, 나리자시정보 시 아트 디렉터) Edited by 고성연



1 독일 출신의 현대미술 거장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개인전 대전의 명소 떠오른 복합 문화 공간 헤레디움(HEREDIUM)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 제목 중 가을(Herbst)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헤레디움의 공식 개관전이다. 2024년 1월 31일까지. 2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회화를 비롯해 안젤름 키퍼는 오랫동안 납, 금박, 지푸라기 등의 재료를 사용해 작업했다. 3 대전 동구에서 자리한 헤레디움의 건물 외관. 일제강점기인 1922년 만주와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설립된 수탈 기관인 (주)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전 지점 건물을 복원해 운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 1, 2, 5 photo by 고성연 6 Anselm Kiefer,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2021). 헤레디움의 전시에서 선보인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연작. Photo by 강정희 7 Anselm Kiefer, 'Die Blätter fallen, fallen wie von weit, als wäkten in den ferne Himmeln Gärten'(1995~2021), 185 x 380cm. Photo by Charles Duprat





아트 위크 도쿄(AWT) 2023\_프리뷰

# falling for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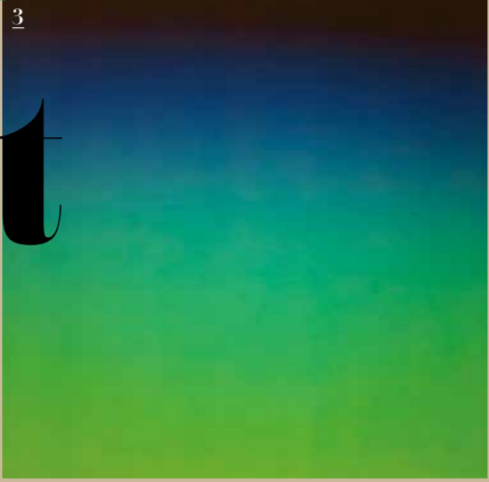
다시금 하늘길을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게 된 요즘 우리나라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이웃 나라 일본. 만약 울가를 일본의 수도 도쿄를 찾을 계획이 있다면, 혹은 가까운 도시를 방문할 예정인 미술 애호가라면 염두에 둘 만한 행사가 있다. 오는 10월 말 프리뷰로 시작해 11월 초까지 열리는 가을 미술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무비자 여행이 불가한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가을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걸었고 지난해 확장형 버전으로 다국적 손님들을 본격적으로 맞이한 이 글로벌 행사는 올해 도쿄의 아트 신(scene)을 몸소 감상할 수 있는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판을 벌인다. 특히 작품 구매가 가능한 전용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에 눈길을 끈다.



어떤 도시나 지역,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는 전략적인 콘텐츠의 출발을 가까이에서 접한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이 현대 도시에서 강력한 상징적 제로 작동하는 문화의 영역이라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지난해 글로벌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서울에 입성한 이래 2년째 초기에 문화 예술 생태계를 한껏 달군 아트 주인의 열기를 생각해보라. 행사 자체에 대한 호오(好惡)를 떠나 이 주간에 쏟아지는 여러 부문의 관심과 투자의 강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카이프(Kia)프리즈를 내세운 미술 주간이 뜨겁게 펼쳐진 뒤에 도쿄에서 가을의 정점을 장식하는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이하 AWT)가 열리는 구도가 형성된지라 더욱 흥미롭다. 프리즈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트 페어 카이프와 공동 개최라는 느슨한 형태로 손을 잡았고, 포이즈와 더불어 아트 페어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트 바젤(Art Basel)이 협업(collaboration)이라는 구호 아래 걸보에게는 튀지 않는 신중함 모양새로 아트 AWT의 도우미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물론 AWT는 아트 페어 형식이 아니라 여러 전시와 문화 예술 콘텐츠를 도시가 행사처럼 즐기는 '쇼케이스'를 표방하지만, 호응이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판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지 못할 리 없지 않겠다. 실제로 울가를 나흘(11월 2~5일)의 공식 일정으로 다시 찾아오는 AWT 2023은 처음으로 세일즈 플랫폼 'AWT Focus'를 도입한다. AWT가 첫째 내국인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소프트 론칭으로 2만 명, 지난해에는 아트 바젤의 해외 VIP 클라터들을 포함해 3만 2천 명 규모의 방문객을 모은 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시도로 여겨진다. 럭셔리 호텔인 오쿠라 도쿄 부지 내의 오쿠라 미술관(Okura Museum of Art)에서 《Worlds in Balance: Art in Japan from the Postwar to the Present》라는 기획전이 열리는데, 이는 일본인 혹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64명의 1백 점 넘는 작품을 판매하는 작은 아트 페어의 성격을 띤다(표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링크를 통하여나 현장에서 구매 가능). 전후 일본의 아방가르드를 이끈 구타이 그룹의 리더 요시하라 지로를 비롯해 1960년대 말 모노하 운동을 이끈 이우현(한국 작가), 현대 사진의 가장 스기모토 히로시등도 포함돼 있다.

AWT 포커스를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구성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39개 갤러리를 비롯해 총 50개 기관조직이 참여하는 AWT 2023 명단에는 일본에서 미술관 전시로는 27년 만에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기획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OT를 비롯해 도쿄 국립 신미술관,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같은 유수 공공 미술관은 물론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다룬 기획전인 진행 중인 모리 아트 센터, 아티즌, 시세이도 갤러리, 에르메스의 도쿄 전시 공간 인 르 포럼 등 사립 미술관과 아트 센터, 그리고 아라 위크 도쿄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렉터 니카와 아쓰코가 이끄는 화랑인 다케 나카와를 위시해 갤러리 페로랑, 불림 앤드 포, 스카 이더베스하우스, 웨이팅룸 등이 올라 있다. 이 밖에도 영상, 미시, 건축 등의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www.artweektokyo.com). 구역별로 정리된 지도를 보고 자신만의 노선을 정한 다음, AWT 로고가 새겨진 무료 전용 버스를 타고 여러 아트 스페이스를 마음껏 돌아다니다 미술관 입장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갤러리는 무료입장). 글 **고성현**



1 David Hockney, 'A Year in Normandy' (detail), 2020~2021, Collection of the artist. © David Hockney 도쿄도의 현대미술관 MOT에서 영국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MOT는 호크니 작품 11450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작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60년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다. 아트 위크 도쿄(AWT) 2023이 폐막하는 오는 11월 5일 호크니 전년도 미술 내린다. 2 MOT 건물 외관. 3 AWT 포커스에 출품될 스기모토 히로시 Hiroshi Sugimoto의 작품 Opicks 016(2018), Chromogenic print, 119.4 x 119.4 x 7.6cm. Courtesy Gallery Koyanagi. 4 역시 AWT 포커스에 출품될 이우현의 작품 'Untitled'(2008), Terracotta, 43 x 50.5 x 5cm. Photo by Nobutada Omote. Courtesy SCAI The Bathhouse. 5 일본 갤러리 스카이 디베스하우스에서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멕시코 작가 보스코 소디(Bosco Sodi)의 개관전이 진행 중이다(11월 5일까지). 'Rhizus Vermiculus', Installation view, SCAI The Bathhouse, Tokyo, 2015. Photo by Nobutada Omote. Courtesy SCAI The Bathhouse. 6 Mao Ishikawa, 'from Red Flower: The Woman of Okinawa(1975~1977)', Courtesy Tokyo Opera City Art Gallery. 7 Yoko Terauchi, 'One is Many Many is One(2022)', Paper and plaster, 386 x 555 x 423cm, Installation view, Galerie Hoffman, Friedberg, Germany, 2022. Photo by Fabien Stransky, Courtesy Hagwara Projects. 8 Saori Miyake, 'Still from Nowhere in Blue(2023)', Video, 20 min. © Saori Miyake Courtesy the artist and Waitingroom. AWT 2023에는 미디어 작업을 하는 미디어 시오리미에 비롯해 떠오르는 여성 작가들이 부각되는 전시가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9 AWT 포커스에 출품되는 건축 거장 아사카리 아라키(Araki Isozaki)의 작품, Yankai Pavilion, Hara Museum ARCC(2019). 3D-printed resin model(scale 1/100), spray paint, 55.5 x 44.2 x 8.7cm. Courtesy Misa Shin Gallery.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미에 클라쉬 언리미티드** 아이코닉한 감성을 담은 독특한 디자인의 옐로 골드 케이스에 옐로 골드 및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우아한 감성을 더한 퀴츠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부쉬미리 미크리** 고딕 및 르네상스시대 건축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로즈 윈드 장식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화이트 골드 포인트를 더했으며 총 1,626카럿, 2백26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화려한 느낌을 준다. 4천1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스피드 다이얼트** 화려한 디자인과 다이아몬드를 결합해 눈부신 광채로 국경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품격 있는 타임피스 컬렉션의 워치. 오묘한 메카닉 로즈 골드 다이얼을 매치하고 총 4,49카럿, 2개 다이아몬드 다이얼을 감싸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억2천7백99만원. 문의 02-6905-3390

**해키리 디바스 드림** 지름 33mm 로즈 골드 케이스의 베젤에 48개의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밀라카이트 다이얼에 1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인덱스를 장식하고 3백2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벨 비늘을 형상화한 독특한 브레이슬릿 디자인으로 화려함을 부각했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9천302만원. 문의 02-6105-2120

**다움 타임리스 라디트 다움** 브레이슬릿 워치의 정수를 보여 주는 디자인. 에펠레로 완성한 베젤은 한 송이의 꽃을 연상시키며, 지름 21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얼과 브레이슬릿까지 총 8,097카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감성을 부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에르메스 캘리** 아이코닉한 자음의 모양으로 액세서리 같은 독특한 감성을 부여하는 워치. 로즈 골드 케이스에 총 0.196카럿 4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에는 총 0.84카럿 2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다이얼은 자음과 1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포인트를 주었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822

**피아제 리얼라이트 칼라** 지름 32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밀라카이트 스트랩으로 완성했으며 총 1,667카럿, 63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독특한 모양의 베젤이 브레이슬릿 액세서리와 같은 감성을 부여한다. 다이얼은 약 3,167카럿의 천연 밀라카이트로 완성해 강렬한 포인트를 준다. 피아제 자체 제작 501P1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8천502만원. 문의 1668-1874에디터 **성정민**



# The Dazzler

브레이슬릿의 화려하고 우아한 감성에 워치의 기능을 더해 멀티플레이어적 면모를 드러내는 브레이슬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Bold round

대범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링은 그 자체로 훌륭한 포인트가 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샤넬 화인 주얼리 아티셀 N5** 총 0.35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개와 총 0.67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0개를 세팅한 18K 백색 골드 소재의 링 2천1백70만원, 문의 080-805-9628 **소피드 다이아몬드** 타원형 디자인이 시크한 맛을 부여하며, 정밀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우아한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80 **쇼세 비마이 리브** 미러 폴리싱 처리한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받침 모티브가 화사한 광채를 배가하며, 다이아몬드 뒤쪽의 오픈워크 세팅이 스톤을 더욱 투명하고 빛나게 완성한다. 1.34캐럿의 1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90만원, 문의 02-3442-3359 **타파니 타파니 락** 연태와 포용의 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볼드한 디자인이 세련된 맛을 전한다.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반쪽을 다이아몬드로 파베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블가리 디어스 드림** 매종의 아이콘이었던 부채꼴 모티브가 문어는 링, 화이트 골드 소재로 중앙에 1개의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 주변에 오픈워크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1천9백50만원, 문의 02-6105-2120 **프레드 섹세스**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소재의 조화가 세련된 맛을 더욱 배가한다. 윗쪽에 총 0.6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맛을 더했다. 1천80만원, 문의 02-514-3721 **카르미에 클라쉬드 가르미에** 불꽃같은 디자인이 시크한 무드를 선사한다. 오닉스와 핑크 골드 소재가 현대 아우라를 지니고 있는 디자인이다. 1천9백만원,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자경**

이시애틀 신영민

# On the Wrist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심플하고 도회적인 무드를 전하는 맨즈 브레이슬릿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쇼세 리앙 에비던스**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했으며 총 0.05캐럿, 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포인트를 주어 시크하고 차분한 느낌을 선사한다. 6백만원, 문의 02-3442-3359 **소피드 아이스큐브 컬렉션** 열음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레이슬릿으로 큐브 모양의 밴드는 심플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광채를 발산한다. 7백20만원, 문의 02-6905-3380 **타파니 타파니 락** 연태와 포용의 형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타파니 락은 볼드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면서도 다이아몬드로 악센트를 추가해 화려한 느낌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부세인 화이트**로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한다. 6백만원, 문의 02-3467-8334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펠링 모티브가 하우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줌으로써 심플한 맛을 전한다.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제작했다. 1천2백30만원, 문의 080-805-9628 **블가리 비제리온** 고대 주화에 새긴 곡선형 명리를 연상시키는 로고 장식이 특징인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 5백85만원, 문의 02-6105-2120 **다이아니 벨 에포크** 벨 옐로 골드 소재로 직사각형과 동그라미가 교차로 이어진 디자인이 역동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터 윤자경**

이시애틀 신영민

# great world of Dive Watches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세 번째 장이 열렸다.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피프티 패덤즈가 탄생한 프랑스 남부 칸에서 화려하게 베일을 벗은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 블랑팡이 사랑하는 바다에서의 다양한 액티비티,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 섬에서 열린 다이내믹한 언베일링 행사까지, 어느 하나 블랑팡답지 않은 것이 없었던 뜻깊고 인상적인 탄생 7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등장한 이 새로운 타임피스는 블랑팡이 개척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혁신적인 미래까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  
 새로운 발견의 결실인 피프티 패덤즈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다이빙 경험에서 탄생했다. 블랑팡의 공동 CEO이자 열정적인 다이버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다이빙을 즐기다가 갑자기 산소 부족 현상을 겪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스쿠버다이빙에 알맞은 시간 측정 도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빙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구상했다. 수동 와인딩 방식에 비해 크라운에 배치된 실의 마모가 적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다이빙 환경에 존재하는 자성으로부터 위치를 보호하는 항자성,

10bar의 방수 기능, 어두운 색상의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며 우수한 가독성을 제공하는 XXL 야광 마커에 이르기까지, 1953년에 탄생한 피프티 패덤즈는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중으로 밀폐 처리한 더블 실 크라운 시스템, 케이스 고정 시 오링(o-ring) 시스템의 변형을 막아주는 케이스 백의 스크루, 단방향 회전 베젤을 특허를 획득했다. 당시 프랑스, 독일, 미국, 노르웨이를 포함한 주요 군대에서는 전투 잠수부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과 성능을 지닌 피프티 패덤즈를 자연스럽게 채택했다. 장-자크 피슈테르의 아이디어는 워치메이킹 분야 전반에 걸쳐 다이빙 워치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피프티 패덤즈로 안전한 다이빙의 기본을 확립한 장-자크 피슈테르는 1950년대에 한발 더 나아가 수분 표시기를 개발했다. 다른 다이버가 이전에 수행한 임무에서 시계가 손상되거나 오용되지 않았음을 다이버에게 알려주는 추가적인 안전장치인 수분 표시기는 1957년 밀스펙(mil-spec) 워치의 다이얼에 장착되었다. 이때 출시된 밀스펙 워치 중 일부는 컬렉터들에게 가장 희귀하고 인기 있는 타임피스이기도 하다. 수분 표시기는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본 사양이었으며, 미국 해군은 이 사양을 갖춘 밀스펙이 잠수 미션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워치라 평가했다.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는 이 밀스펙 워치에 바치는 오마주다.

**3세대 리미티드 에디션, ACT 3**  
 피프티 패덤즈를 기념하는 이 세 번째 타임피스가 미국 해군이 사용했던 1세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



1 바다를 삼키는 해양 프로젝트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의 개척을 보여주는 브랜드, 블랑팡. 2 지난 9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피프티 패덤즈 탄생 70주년 행사는 게스트들이 직접 바닷속을 체험하는 이벤트로 시작되었다. 3 전 세계 다이버들의 로망,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워치. 4 블랑팡과 바다는 탄생부터 떼어질 수 없는 관계다. 5 70년 전 피프티 패덤즈가 탄생한 프랑스 칸에서 새롭게 개편된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 6 피프티 패덤즈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이코닉 건물. 7 피프티 패덤즈 탄생 70주년 기념 언베일링 이벤트가 열린 프랑스 칸의 섬. 8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Act 3는 당시 주요 군대기 채택한 밀스펙(mil-spec) 워치를 재해석해 선보였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수분 표시기를 갖추었으며, 총 5백55점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였다. 초기 모델에 적용된 41.3mm 케이스와 9K 브론즈 골드 소재가 특징이다. 9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블랑팡과 해양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워크숍. 전 세계 2백60여 명의 게스트가 참석했다.

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수분 표시기가 있는 매트 블랙 다이얼에서부터 빈티지 슈퍼-루미노바(Super-LumiNova®) 인덱스, 블랙 세라믹 인서트 장착된 단방향 회전 베젤, 빈티지 슈퍼-루미노바 다이빙 스케일, 바다에서 수거한 어망을 재활용한 소재로 초기 모델의 색상 스타일을 재현한 투톤 NATO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두 시계의 긴밀한 관계가 돋보인다. 한 가지 차이점은 케이스 소재. 밀스펙 워치가 저면 실버로 제작된 반면,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Act 3 워치는 9K 브론즈 골드 소재다. 구리가 함유되어 있어 '브론즈'라는 이름이 붙은 브론즈 골드는 9K 골드(37.5%)와 구리(50%) 외에도 실버, 팔라듐, 갈륨으로 이루어진 특허 합금 소재로, 핑크 톤이 감도는 색상과 심미적 가치가 돋보이는 이 소재는 전통적인 브론즈와 달리 피부에 직접 닿아도 되며, 골드가 함유된 덕분에 청록색으로 변색되는 산화 현상 없이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워치는 군용 시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의 용도를 고려한 타임피스로 마니아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에 충분하다. 5백55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Act 3는 워치 케이스도 역사적인 방수 카메라 케이스에서 영감을 디자인으로, 블랑팡의 해양 보호 프로젝트를 반영했다. 실제로 수중 사진 촬영은 다이빙 워치의 개발과 함께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심해 세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두 시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기억이 담긴 이 타임피스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빙 워치의 역사

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블랑팡이라는 이 특별한 브랜드를 더욱 지켜봐야 할 이유다.

**피프티 패덤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 다이버의 수중 탐험을 위해 제작한 이 워치는 전 세계의 선구적인 다이버와 전투 잠수부대가 전문 시간 측정 장비로 선택했다. 우수한 방수 기능, 견고한 크라운 시스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어두운 색상의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는 야광 표시, 단방향 회전 베젤,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 탐사를 떠나는 수많은 다이버의 필수 도구가 되었다. 피프티 패덤즈를 전형적인 다이빙 워치로 확립시켜준 주요 기능은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다이빙 워치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은 현대의 다양한 피프티 패덤즈 모델은 견고함과 신뢰성으로 명성이 높은 무브먼트를 갖추었으며, 여기에는 다이빙뿐만 아니라 다이빙의 위험 요소, 필수 조건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수많은 기술 혁신이 담겨 있다.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견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70년간 블랑팡은 해양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의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미 다이버들에게 레전드가 된 피프티 패덤즈를 통해 우리는 브랜드의 사회 공헌과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블랑팡이 그려갈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와 함께.



# Modern Eleg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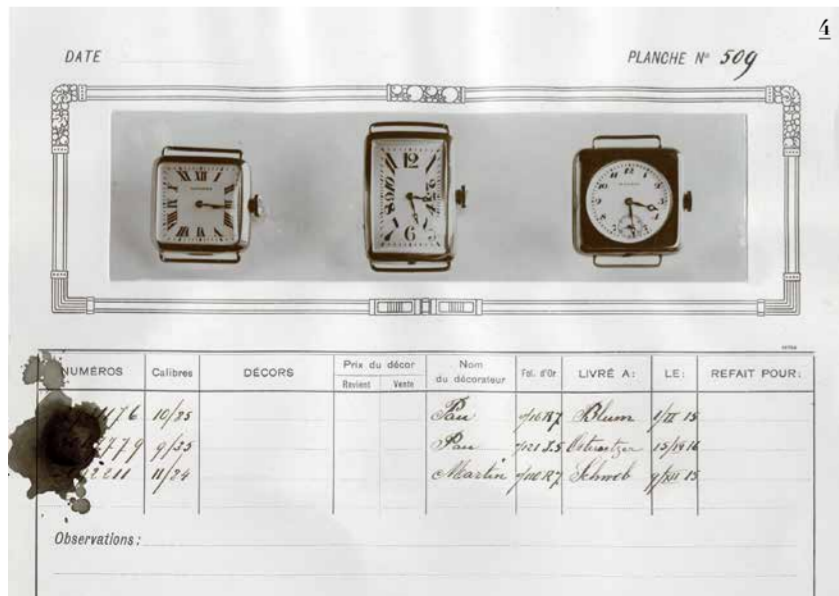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올드머니 룩을 위한 제안, 포멜라토의 이코니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쪽부터 차례대로) 지름 약 12.45mm의 볼드한 볼륨이 특징인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맥시 링, 18개의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우아한 멋을 배가했으며, 매끄러우면서도 대담한 느낌을 주는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밴글, 총 4.2캐럿의 4백22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오버사이즈 링크 스냅 클로저가 특징인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테크리스, 38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전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총 2.57캐럿의 핑크 투르말린, 오렌지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차보라이트, 레드 스피넬, 블루 지르콘, 탄자이트, 디멘토이드, 에미시스트를 세팅한 이코니카 멀티컬러 링, 컬렉션의 아이콘이라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총 5.1캐럿의 다채로운 원석을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멀티컬러 브레이슬릿, 다양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총 1.9캐럿의 스톤이 눈길을 끄는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멀티컬러 링, 별, 삼각형, 사각형의 유화적인 무드로 스톤을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윤지경**



# 작은 다이얼에 담긴 큰 의미

적어도 1년에 4회 이상, 매년 몇백 피스가 훌쩍 넘는 아이টে็ม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과 다르게 위치는 라인이 다양하지도,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빠르지도 않다. 그것이 바로 제품 하나하나에 더욱 정성을 쏟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론진의 대표 여성 컬렉션 돌체비타의 신제품 론칭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다. 단지 사이즈만 작아졌다고 하기엔 담고 있는 의미가 크다.

## 돌체비타 컬렉션의 타임라인

‘달콤한 인생’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돌체비타(dolcevita)’는 이탈리아 남부인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을 표현한 가장 완벽한 단어다. 인생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탐닉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현재를 즐기며 느긋하지만 열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한다. 론진의 대표 여성 컬렉션 돌체비타 역시 그러하다. 첫에는 차분한 고급스러움과 지적이고 우아한 미학적 코드가 눈에 들어오지만, 착용할수록 엘레강스한 아우핏과 어떤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실용성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좋아하는 여성의 데일리 워치로 알맞은 시계임을 알 수 있다. 1832년에 탄생한 론진은 1910년대에 처음 직사각형 시계를 제작판매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 돌체비타 컬렉션에 영감을 된 직사각형 케이스의 전설적인 모델은 1927년에 탄생했고, 70년 뒤인 1997년 ‘론진 돌체비타’라는 이름의 컬렉션이 출시되었다. 이 컬렉션은 2015년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해 재탄생했으며, 2023년 올해는 작은 디테일로 꼭 채운 미니 돌체비타를 선보였다.



1 스틸 케이스에 다이얼을 세팅한 미니 돌체비타. 2, 3 11개의 신제품 중 컬러 구성에 초점을 맞춘 미니 돌체비타. 4 론진은 1910년대에 처음으로 직사각형 시계를 제작했다. 5 돌체비타 캠페인에 영감을 준 1927년 모델. 6, 8 미니 돌체비타 론칭을 기념하는 자리. 글로벌 앰배서더 제니퍼 로렌스, 레이 장 페이지, 케이트 윈슬렛, 수지, 자오 링 같은 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다. 제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며, 부드러운 라인과 정확한 비율로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돌체비타의 미니 버전. 작지만 더없이 가치 있는 시계다.



## 사이즈는 작게, 감성은 크게

미니 돌체비타의 가장 큰 매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로 21.5mm, 세로 29mm의 콤팩트한 사이즈와 좀 더 부드러운 워치 케이스, 작은 케이스 안에는 매우 정밀한 L178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두 번째는 직사각형 케이스 내부의 코스모 원형 다이얼.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보이는 코스모 다이얼은 실버 선데이 배경에 화이트 매트 아워 트레이어는 미묘한 대비가 특징이다. 페인팅 처리로 마숫자와 블루 스틸 핸즈는 다이얼의 밝은 색조와 대비되어 가독성을 높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는 1백98개 링크로 이루어진 유니크한 스틸 브레이슬릿이다. 이 디자인은 워치의 주얼리적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착용자에게 특별한 감성을 주기 위한 론진의 도전이기도, 착용감이 뛰어나고 케이스 디자인과 잘 어울리며, 무엇보다 땀과 같은 테일러 주얼리와 레이어드해 개성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11개의 모델 중 4개 모델은 미니 돌체비타 컬렉션의 다양한 컬러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스틸 베젤에 38개의 IF-VVS 톱 웨슬렌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 포인트 컬러와 동일한 아이보리 화이트, 민트 그린, 블루섬 핑크, 세린 블루의 엘리게이

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골드 컬러의 로미숫자 인덱스와 핸즈가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데, 이 모든 디자인 요소는 활동적이고 활기찬 여성을 위한 현대적인 감성을 대변한다.

## 슬로건 그 이상의 의미

론진의 슬로건 ‘우아함은 태도에서 비롯된다(Elegance Is an Attitude)’는 1999년에 탄생했다. 이 유명한 슬로건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바로 돌체비타 라인이다. ‘우아함’이란 단어는 직관적이지 않아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글로벌 앰배서더 제니퍼 로렌스, 레이 장 페이지, 케이트 윈슬렛, 수지, 자오 링 같은 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다. 제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며, 부드러운 라인과 정확한 비율로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돌체비타의 미니 버전. 작지만 더없이 가치 있는 시계다.

## 뉴욕에서 열린 론칭 행사

지난 9월 22일 맨해튼 고담홀에서는 새로운 미니 돌체비타 컬렉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과 이탈리아의 달콤한 삶이 만난 이 현장에는 론진의 공식 엘레강스 앰배서더 수지와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해 바버라 팔빈과 주요 매체 프레스 등 전 세계 다양한 유명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제니퍼 로렌스는 뉴욕에서 미니 돌체비타 캠페인을 촬영하며 제품의 매력에 푹 빠진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궁정적으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현대적인 타임피스 미니 돌체비타는 국내에서 10월 부터 만날 수 있다. 에디터 정리음(뉴욕 현지 취재)

Interview with\_ Matthias Breschan(론진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

“우아함은 우리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동시에 전통적인 미적 코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는 항상 자신의 취향과 가치는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유쾌해, 욕구와 기본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Q1 론진에서 3년을 보냈다. 처음 론진에 합류했을 때 생각했던 ‘론진과 깊이 알게 된 지금의 론진은 어떻게 다른지? 론진에 합류했을 때, 나는 브랜드의 진정한 유산인 길고 풍부한 역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론진은 1백90년이 넘는 풍부하고 고유한 역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워치 메이킹에서도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론진이 GMT나 플라잉 백 무브먼트를 발명하고 고주파 무브먼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선두 주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또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객에게 독특하고 독창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론진 부티크의 자체적인 네트워킹을 개발하고 있다. 우아함, 전통, 정밀함을 구현하고 전 세계 세계 애호가와 감성가에게 어울리는 뛰어난 타임피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Q2 올해 론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보고 있는가? 한국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가? 2023년은 론진에 흥미로운 역동적인 한 해였다. 제품 개발부터 고객 참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과 혁신을 목격했다.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국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시장이며, 우리는 론진 엘레강스 홍보대사 수지와 정우성의 서포트를 받아 한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를 강화하고 있다. Q3 론진의 포지셔닝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가격대를 넘어서는 고품질 제품이다. 동일한 존(zone)에 있는 경쟁 브랜드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주요 강점 중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아우르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어필하는 폭넓은 제품 컬렉션, 두 번째는 스포츠 워치와 클래식 워치 사이의 밸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1백90년이 넘는 헤리티지를 자랑한다는 것이 세 번째다. 이러한 요인들이 론진을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특별한 브랜드로 자리

리 잡게 했다. Q4 고객들이 ‘론진 하면 바로 떠올렸으면 하는 한 단어? 한 가지만 고를 수 없다. 적어도 세 가지인데 전통, 우아함, 퍼포먼스. 론진의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애 그리고요 또 하나 ‘우아함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라는 우리의 슬로건도 떠올렸으면 좋겠다. Q5 미니 돌체비타는 기술적으로 미학, 우아함에 초점을 맞춘 시계라 생각한다. 어떤 여성상, 어떤 TPO를 생각하며 전개하는 라인인가? 새로운 미니 돌체비타 모델은 어떤 스타일링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시계를 찾는 활동적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절제된 형태와 클래식한 스타일, 동시대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미적 변주를 통해 론진의 차분한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우아함을 표현하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니 돌체비타는 밤낮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착용할 수 있다. 1997년 출시 이후 론진 돌체비타 컬렉션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미니 돌체비타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Q6 직사각형 케이스와 밖으로 파지는 듯한 로만 인덱스가 가장 큰 특징인 돌체비타인데, 이번엔 내부에 원형 다이얼 넣어 또 다른 새로운 재미가 느껴진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발원된 디자인인가? 새로운 코스모(Cosmo) 원형 다이얼은 전통과 모던함을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다. 추가된 내부 원형 다이얼은 컬렉션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시각적인 매력을 높일 뿐 아니라 신선하고 엔터테인먼트 느낌을 주려는 의도다. Q7 당신의 돌체비타는 어떤 순간(moment) 인가?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맑은 첫 이탈리아 커피 향기. Q8 이 질문의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시계는 론진의 어느 모델인가? 그리고 그에 맞춘 오늘의 아웃핏은? 요즘 나는 론진 스피릿 플라잉 백 모델을 즐겨 착용한다. 대담한 스타일과 제품이 자신 역사(론진은 1920년대에 플라잉 백 기능을 도입한 최초의 브랜드였다)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금 세팅 피어링 워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친밀감 때문이기도 하다.



코트 & 폴리에스터 소재의  
블랙 & 화이트 컬러 포인트드  
빈 드레스, 카브 스킨 소재의  
일부전 앵클부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 The other girl

빛나는 가을 하늘 그리고 클래식한 뉴욕.  
그녀의 눈부신 가을날의 초상. photographed by park aron

울 & 캐시미어 소재의 블랙 컬러  
오피서 케이프 5백50만원, 블랙 컬러의  
스키니 진 모두 가격 미정 셀러는  
바이 에디슬러먼, 레더 소재의 롱부츠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라.

캐시미어 소재의 블랙 컬러  
퀸스타운 원피스 4백85만원,  
키프 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레베카 발레리나 슈즈  
1백16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울트워드 소재의 블랙 & 화이트 컬러  
자켓, 이리데스트 트워드 소재의 블랙  
컬러 버뮤다팬츠, 메탈 & 글라스 펄  
소재의 블랙 컬러 초커, 메탈 & 스트라스  
소재의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넬.





프리지 소재의 블랙 컬러 재킷,  
프리지 소재의 블랙 컬러 스커트,  
레더 소재의 롱부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폴리에스터 & 코튼 소재의 블랙 컬러  
블라우스 1백72만원, 바진 울 소재의 블랙  
컬러 미디스커트 99만원, 레더 소재의  
블랙 컬러 마이크로 백 벨트 86만5천원,  
레더 소재의 블랙 컬러 도르세이 썬프스  
1백48만원 모두 **토조**, 골드 컬러의 오픈 링  
네크리스 27만8천원 **포트레이트 리포트**.





올 시즌의 블랙 컬러 별문 코트 5백만원, 램 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토이 만타 하이 부츠 4백만원 모두 **로아에**.

리퀴드 스트레치 벨벳 소재의 블랙 컬러 워커 재킷 5백20만원대, 브루드글로스 소재의 화이트 컬러 에스토 셔츠 1백20만원대, 폴 보디 니파 램 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로저스 팬츠 가격 미정, 페이퍼트 소재의 블랙 컬러 울트 울프스 가격 미정, 메탈 소재의 벨트 모두 가격 미정 **할프 로렌 컬렉션**.

헤어&메이크업 Hikari Chang  
모델 Sofia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로로피아나 02-6200-7799  
루이 비통 02-3432-1864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할프 로렌 컬렉션 02-6004-0093  
로아에 02-6905-3470  
샤넬 080-805-9628, www.chanel.com  
토즈 02-3438-6008  
셀윈스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포트레이트 리포트 02-2056-1234(분터섬)



# Bon Voyage

튼튼한 내구성과 스타일리시함까지 겸비했다.  
스마트 여행자를 위한 러기지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유망하지만 견고한 코트 캔버스로 재탄생했으며, 상단은 비커터 가죽 트림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엔트르 비라스로 마감한 시그니처 인그레이브 헤드웨어의 디테일이 눈에 띄며, 탈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을 포함해 활용성이 높다. 보이지 캔버스 & 비커터 레더 더블 백 2백70만원대 **알트 로렌 컬렉션**, 문의 02-6004-0093, 기능적인 디자인과 대비되는 컬러 표현으로 유니크함과 모던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사파이는 가죽 디테일이 돋보이는 프리다 실물 트롤리 가격 미정 **프리다**, 문의 02-3442-1830, 하우스의 역사 깊은 트렁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라지 사이즈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을 표방한 캔버스와 가죽 소재가 멋을 배가한다. 각 모서리에 디테일을 더했으며, 2개의 풀메이시 선 락으로 더욱 안전하게 짐을 수 있다. 롤링 트렁크 1천1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반짝이는 물결무늬를 선사하는 케이스의 표면은 현대적인 실루엣을 자랑한다. 알루미늄 소재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탄력성을 부여하는 19 디그리 알루미늄 인테리너 캐리어 캐리어 1백79만원 **루미**, 문의 02-539-8960, 런던 시인이 호텔에서 살은 구찌의 사외 경향과 반치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라지 사이즈 타원형의 인터로킹 G 테크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GG 수퍼링 캔버스 스몰 캐리어 트롤리 2백1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시그니처 H 캐리어 돋보이는 샌들로, 슬라이드 디자인 사파링 소재 덕분에 사계절 구별 없이 여행지에서 신기에 제각각인 사파링 소재의 샌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고급스러운 광택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마감한 외부 표면과 더욱 커진 몽블랑 영블럼이 돋보인다. 여러 개의 수납공간을 갖췄으며, 레드 핸들로 편리한 그랑간을 자랑하는 #MY4810 트롤리 캐리어 1백20만원대 **몽블랑**, 문의 1877-5408, 감각적인 줄리앙이 돋보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완충장치를 장착한 휠 덕분에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움직임을 선사하는 애상실 컬렉션 캐리어(사이즈 파인 1백23만원 **리모와**, 문의 02-546-3920 **에디터 윤지경**



리모와 윤지경



작년 6월 에트로에 합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르코 드 빈센조가 선보이는 세 번째 컬렉션, 2024 S/S 에트로 컬렉션은 이번 밀라노 패션 위크의 헤드라이너가 틀림없었다. 신전에서 불멸의 기둥을 세워 쇼장을 도심 한가운데에 신비로운 문명이 등장할 것 같은 유쾌한 상상을 실현하는 장소로 표현했다. 이번 컬렉션에서 에트로는 현실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미지의 공간, 노웨어(nowhere)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 어떤 것을 유형화하거나 규칙에 묶어두지 않고 모든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귀결점이 무용지물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르코 드 빈센조는 노웨어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패션을 은유하는 대상이 되는 자유로운 곳이라 믿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무한히 조화를 이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를 허용하기에 자신과 세상에 대한 다채로운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다. 컬렉션에는 이런 모티프를 담아낸 웨스턴풍 브로케이드와 재킷, 벤티어 모티프 패턴이나 스트라이프, 데님과 테리 패브릭을 과감하게 사용한 의상까지,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이 넘쳐난다. 특히 모든 이의 눈길을 끌었던 폴리네시안식의 땅은 머리 패브릭 장식은 텍사스 부츠 앞코까지 길게 늘어뜨려 기묘한 무드를 자아냈다. 와이드 셔츠에는 신비로운 섬의 문신 같은 일러스트가 자유분방하게 담겨 있으며, 스커트의 스트라이프는 관능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 직선적이거나 수직적으로 길게 떨어지는 실루엣, 보디를 부드럽게 감싸 체형을 드러내는 스타일,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재킷, 허리와 대조되게 풍성한 볼륨감의 블레이저 또는 바시티 재킷 등 다양한 모티프가 모여 에트로만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자아낸다. 절대적인 이 조화에 포인트가 되어 줄 고대 미케네의 부활의 상징이자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문어 일러스트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 그리고 눈을 가린 여신 형상의 귀걸이는 많은 고빈 대신 오로지 본능과 상상력에서만 자유롭게 웃을 입는 행위를 표현하며, 도전을 통한 보상의 의미를 담았다. 문의 02-3446-1969 **에디터 윤지경**



1 우아한 헤어 스타일링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부드러운 아이웨어의 멋스러운 조화가 돋보인다.  
2-4 다채롭고 유니크한 조화를 활용해 자유분방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룩, 5 프리디 장소를 다룬 사파리노 백, 6 2024 S/S 에트로 컬렉션의 파운데이션 모음.

# Now and Nowhere

상상 속 그곳, 노웨어(nowhere)를 모티프로 에트로만의 기발한 제스처를 담은 2024 S/S 컬렉션을 공개한다.



# Feel Autumn

가을 햇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메이크업. 깊고 온화한 컬러감이 감돈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라비엔트 에센스 스킨 클로우 파운데이션**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을 겸비한 파운데이션으로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은은하게 연출하여 글로시 피부를 선사한다. 30ml 82,120원대, 문의 080-564-7700 **샤넬 두스틴 드 아퀴누스 블러셔 798 배주 로즈 에 오브** 밝게 물든 나뭇잎과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블러셔로 낙엽과 더불어 C 로고 파우더 표면에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있다. 차분하면서도 생기를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표현한다. 9g 6만 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비비 브라운 핏 포즈 콤팩트 스킨릭스 로즈** 자연스러운 림과 차분한 연출 가능한 민방, 가벼운 텍스처는 불만받지 않고 수유, 땀으로도 멀리지 않고 손쉽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피부에 스며들 듯 발색되는 은은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또 가을이 내장된 맑고 깨끗한 패키지로 유행이 판이다. 3.7g 6만 원대, 문의 02-6971-3225 **구찌 뷰티 구찌 루즈 아레브르 매트 312 프렌즈 파이어** 크리미한 포플러가 부드럽게 발리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매트한 피니시 특징이다. 밝고 순도 높은 피그먼트를 함유해 한탄할 정도로 따뜻한 오렌지 컬러가 선풍하고 깔끔하게 표현된다. 3.5g 6만 원대, 문의 080-850-0708 **에르메스 블랭 에르 하트리아 헬시 글로우 미네랄 파우더 이 돛토리** 상쾌한 색감의 다비를 이루는 일본의 모래안개의 컬러감을 담은 파우더로 피부에 온기를 불어넣어 얼굴의 입체적인 윤곽을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해 허공을 스치는 듯 가볍게 연출한다. 18g 14만 원, 문의 02-310-5174 **샬라지 루마네트 아이샤이드 핀토** 사투 아쟁의 풍부한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세련된 핑어 핑을 함유해 눈에 영롱한 반짝임과 우아한 컬러감을 선사한다.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몽창 없이 자연스럽게 풀러내는 것이 특징. 2.5g 8만 원대, 문의 070-4370-751 **코라 메르메이 캐비어 스킨 아이 컬러 매트 17 카리엔** 멀티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스킨 제품으로 반질 거칠거칠한 첫 번째 그늘로 선명하게 유지된다.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로 눈가에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풀러내며 다른 제품들과 손쉽게 믹스 매치할 수 있다. 1.64g 5만 원대, 문의 1644-4430 **디올 루즈 디올 포에버 스킨 625** 미차 거울에 밀착해 선명한 발색을 자랑하는 립스틱, 입술 라인 주변으로 풍치가 나 보이지 않는 매트 피니시와 누더한 것도 차별한 무드를 연출하는 컬러감이 돋보인다. 3.2g 5만 원대, 문의 080-342-9500 **메이크업 캐비어 아이스프 스킨릭스 S430 파진 브라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하는 고밀착 스킨-유지 텍스처로 여친 피부에 사용되는 품지이다. 여러 번 바르면 입체적으로 쌓이는 컬러감을 선사한다. 4g 4만 원대, 문의 080-514-8942 **에디터 윤지영**

1



2

가브리엘 샤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타임리스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을 창조한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그녀의 스타일은 샤넬 하우스의 명성 그 자체다. 그녀는 과감한 비전으로 뷰티 테크닉과 스타일, 태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디자인에 우아함과 편안함, 그리고 미학과 기능성을 결합해 심플함을 럭셔리로 정수로 만들었고 샤넬 룩이라는 시그니처를 완성했다. 이방기르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크리에이션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기 위한 과감한 방식으로 궁극의 럭셔리를 탄생시킨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은 또 하나의 프리미엄 립스틱이 탄생했다. 바로 샤넬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담은 아름다운 오브제, 31 LE ROUGE 트레드업 러우즈다. 이로부터 샤넬 하우스가 탄생한 장소의 주소에서 따왔으며,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투명한 글래스 케이스 역시 그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이는 샤넬 작품이 탄생하는 장소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샤넬의 이방기르던 정신을 반영한다. 컬러 역시 샤넬 하우스의 역사와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따온 특별한 컬러로 선보이며,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샤넬 하우스의 놀라운 독창성을 표현한다. 탁월한 혁신성과 예술적인 디자인의 글래스 케이스와 전문 기술, 포플러의 생생까지 립스틱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31 LE ROUGE의 이야기가 만나보자.

교체할 수 있도록 리필 시스템을 적용한 것,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타임리스 럭셔리 오브제에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면서도 리필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 또 리필 제품에 캡을 함께 제공해 립스틱 컬러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컬러로 교체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컬러를 캡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취향에 맞는 컬러를 쉽고 단정하게 교체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 샤넬 하우스의 역사와 오프 쿠티르의 모티브를 담은 특별한 컬러

총 12가지로 출시되는 컬러는 모두 샤넬 하우스의 역사와 오프 쿠티르 컬러 모티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컬러들은 고유의 특별함을 지니며 트렌드에 좌우되지 않는 N5 향수와 트루에 데자르처럼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클래식한 표방한다. 루주 2.55는 아이코닉 샤넬 핸드백의 안감을 떠올리게 하는 딥 가넷 레드 컬러다. 루주 베이지는 펄 베이지 컬러로 사대를 앞서는 가브리엘 샤넬의 아이디어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다. 여성들이 밤에 어두운 컬러의 옷만 입어야 했던 시대, 그녀는 밝게 밝히는 데이 컬러인 베이지로 새틴 이브닝 드레스를 제공했다. 루주 로망은 그녀의 아파트에 두었던 소중한 가죽 재킷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로즈 우드 컬러이며 루주 크흐지에는 크루즈 패션을 위해 탄생한 미드 시즌 컬러인 옐로우를 오렌지 핑크 컬러다. 루주 프리베는 강풍이 31번지의 가을이 돌아온 개단 꼭대기 문을 둘러싸고 있는 스카프와 매력하고 위에 새겨진 유명한 문구를 담았던 브라운 레드 컬러다. 이외에도 푸키시 핑크, 레드 핑크 등 가브리엘 샤넬의 작품이나 공간, 그녀의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은 샤넬은 컬러를 통해 샤넬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다. 포플러 또한 놀란다. 텍스처, 편안함, 컬러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스킨케어 효과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샤넬이 영리한 원료인 샤넬 스킨케어의 정수를 담은 식물의 보석이자 샤넬 독자 성분인 가드나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부드러운 발림성과 오랜 지속력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식물 유래 왁스와 오일을 블렌딩한 포플러로 입술에 풍부한 수분을 선사한다. 미러쿠아 오일을 함유한 포플러는 입술을 더욱 탄력 있어 보이게 연출하며, 바

### 예술적인 디자인의 오브제

31 LE ROUGE는 글래스 케이스에 담긴 샤넬의 첫 번째 립스틱이다. 빛과 맞닿으면 화사하게 반짝이는 각면의 글래스 케이스는 전설적인 강풍이 31번지에 있는 아르데코 계단을 따라 돌아선 거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깨지기 쉬운 유리를 알고 견고한 케이스로 만드는 데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패키지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기술적 위업이라 칭할 수 있다. 반짝이는 글래스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향수 전문 기술과 유리 제조 관련 장인의 전문성을 동원했다. 다이아몬드처럼 섬세하게 커팅한 글래스의 각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2개의 골드 컬러 메탈 링은 오브제나 주얼리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샤넬 립스틱 최초로 표면에 샤넬 로고를 앙금해 특별한 비주얼을 선사한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컬러를 쉽고 간단하게

리는 즉시 최대 8시간 동안 선명한 컬러가 지속되도록 한다. 또 광채를 위한 미세한 피그먼트와 오일, 그리고 셀룰로스 파우더를 함유하고 있으며, 샤넬 커스텀 주얼리의 아이콘인 모티브인 진주에서 영감을 받은 미세한 마르모블 파우더는 오래 지속되는 새틴 피니시를 완성한다. 여기에 향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다. 가드나에서 영감을 얻은 향수 샤넬 하우스 연구소와 함께 샤넬 하우스 조향사 올리비에 블레가 특별한 개발한 은은한 향을 더해 립스틱을 버릴 때마다 후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윤지영

1 예술적인 디자인의 타임리스 럭셔리 립스틱, 31 LE ROUGE. 2 4년 만에 걸쳐 독자적인 향수 전문 기술과 유리 제조의 전문성을 장려해 만든 견고한 립스틱 글래스 케이스. 3 샤넬의 독자적인 성분인 가드나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해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는 31 LE ROUGE의 포플러. 4 샤넬 하우스의 비코 스텝 주얼리에서 영감을 얻은 비스트 레드 컬러의 31 LE ROUGE 루주 비진. 5, 7 31 LE ROUGE의 컬러 모티브인 샤넬 하우스의 역사와 오프 쿠티르 작품. 6 글래스의 매탈 패키지가 탄생에 영감을 준 강풍이 31번지의 아르데코 계단을 따라 돌아선 거울. 8 패셔너블을 상징하는 동인 가브리엘 샤넬이 향수의 부작처럼 발목에 착용했던 크루즈 코르셋 컬러의 플러시 리본에서 영감을 받은 루주 프리베.



3

# Timeless Luxury Object

샤넬 작품이 탄생하는 전설적인 강풍이 31번지에서 영감을 받아 샤넬 하우스의 헤리티지 그 자체를 담은 프리미엄 럭셔리 립스틱, 31 LE ROUGE의 탄생.



4

5

6

7

8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MARGOT ROBBIE

# CHANEL

## J12

IT'S ALL ABOUT SECONDS